

중국어 外國 地名 번역 연구

손 경 옥*

— <目 次> —

I. 머리말	III. 원지음과 다른 지명 번역어
II. 지도와 지리서를 통해 본 지명 번역	IV. 한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의 외국지명에 대한 한자 번역 표기는 서양의 존재가 중국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그친다. ‘印度, 天竺’처럼 음역과 의역의 방법이 사용 되었다. 중국이 서양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게 된 명, 청 이후에는 마테오리치의 《坤輿萬國全圖》를 비롯한 많은 세계지도와 세계지리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 서양지명을 중국 한자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세계지도들과 지리서는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두 나라의 한자 지명 표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처음에는 중국 자료의 한자 지명을 그대로 따라 쓰다가 후에 자국의 음에 맞는 한자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자 번역은 대부분 음역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수이기는 하나 ‘大西洋’, ‘太平洋’, ‘紅海’, ‘合衆國’ 등과 같은 의역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필자가 중 고등교육을 받았던 1970~80년대에는 역사 교재에 아관파천(俄館播遷)과 노일전쟁(露日戰爭)이란 표현을 혼용했고, 대학의 학과는 노

* 대구한의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어노문학과(露語露文學科)¹⁾, 불어불문학과(佛語佛文學科), 독어독문학과(獨語獨文學科), 서반아어과(西班牙語科) 혹은 서어서문학과(西語西文學科)로 불렸으며 지금도 그렇게 불리는 대학이 있다. 원지음인 유럽(Europe)과 한자음 구라과(歐羅巴)가, 프랑스(France)와 불란서(佛蘭西), 이탈리아(Italia)와 이태리(伊太利)가 같이 쓰이던 시절이었다. 필자의 과문(寡聞)탓이었지만 당시 조선말에 왜 러시아에 대해 ‘俄羅斯’와 ‘露西亞’라는 두 가지 지명이 사용되었는지 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으며, 후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해 러시아가 중국어로 ‘俄羅斯’, 스페인은 ‘西班牙’인 반면 프랑스는 우리가 쓰는 한자 지명인 ‘佛蘭西’가 아닌 ‘法國’, 독일은 ‘獨逸’이 아닌 ‘德國’이라 살짝 당황하기도 한 기억이 있다.

본 논문은 아주 오래 전 궁금했지만 물어둔 이러한 몇 가지 사소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외국 지명의 한역(漢譯)에 대한 연구는 일본어학계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金敬鎬(1999)의 〈外國地名의 漢字略語表記-濠洲와佛蘭西를 중심으로〉, 鄭英淑(2000)의 〈開化期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의 漢字表記研究〉, 朴省姬(2011)의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의 서양지명 표기 연구-《海國圖志》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등 다수가 있다. 중국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적지 않은 논저가 있는데 그 중 《外國地名語源詞典》(1983)이 가장 유용한 참고 자료이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세계지도인 《坤輿萬國全圖》와 《海國圖志》, 《瀛環志略》 등의 세계 지리서들에 등장하는 지명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광둥(廣東)성과 푸젠(福建)성은 16~17세기 중국 동남부의 대표적 개항지였으므로 당시 그 지방 방언 음으로 지명 번역이 최초로 많이 이루어진 바 이에 관련해서는 샤먼(廈門), 광저우(廣州) 등의 현지 화자들에게 발음 자문을 구하였다.

1) 한글 전용 세대들을 위해 학과명을 러시아어문학과, 스페인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로 하는 학교도 많아졌다.

II. 지도와 지리서를 통해 본 지명 번역

일본이나 조선을 비롯한 중국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한자 명칭은 옛날부터 존재했었지만 유럽 등 서양의 지명에 대한 한자 번역은 16~17세기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당시 중국어로 쓴 지도와 지리서에서 시작된다.

이탈리아인 마테오리치(利瑪竇, 1552~1610)는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하였으며 1584년 마카오에서 당시 최신의 서양 지도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고 해설을 덧붙인 《山海輿地圖》를 만든다. 마테오리치는 첫 번째 지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번의 지도 제작을 시도했고 1602년 마침내 북경에서 명나라 관리 이지조(李之藻, 1565~1631)와 함께 서양인이 한자로 지명을 표기한 세계 최초의 지도 《坤輿萬國全圖》²⁾를 만들었다. 《坤輿萬國全圖》에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오대주를 비롯한 1,113개의 지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에 도착 후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 중국어에 능통했던 그가 최초로 서양의 지명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³⁾ 이때 번역된 일부 지명 즉 ‘亞細亞’, ‘歐羅巴’, ‘大西洋’, ‘地中海’, ‘羅馬’, ‘古巴’, ‘羅馬尼亞’, ‘加拿大’ 등은 중국에서 현재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奧失突利亞’, ‘以西把你亞’, ‘亞爾百尼亞’, ‘墨是可’, ‘魯西亞’, ‘牙賣加’⁴⁾ 등의 음역 지명도 비록 현재와 약간 다른 한자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쉽게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다.

마테오리치가 이탈리아인이었으므로 이탈리아어 기반의 음역이 많아서 ‘意大里亞(Italia)’, ‘波羅尼亞(polonia)’, ‘翁阿利亞(Ungheria)’, ‘思可齊亞(Scozia)’, ‘入爾馬尼亞(Germania)’⁵⁾ 등과 같이 유독 ‘-亞’로 끝나는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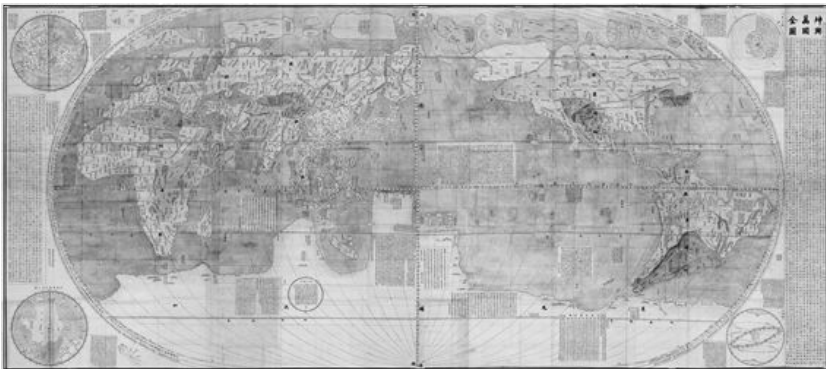
2) 1602년 북경판 《坤輿萬國全圖》는 6폭 병풍으로 제작된 대형 지도다.

3) 마테오리치는 중국어와 중국 교전을 깊이 연구하여 1591년에서 1594년까지 중국 역사 서적을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하였으며 이 결과물은 후일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4) 오스트리아, 에스파냐(스페인), 알바니아, 멕시코, 러시아, 자마йка.

지명 번역이 많다. 이들은 나중에 영어 음 번역으로 바뀌면서 ‘意大利(Italy)’, ‘波蘭(Poland)’, ‘匈牙利(Hungary)’, ‘蘇格蘭(Scotland)’, ‘日爾曼(Germany)’로 음절이 짧아진다. 이탈리아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瑪泥兒訶’(마닐라), ‘步爾葛利亞’(불가리아)처럼 원음 음절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음역하다 보니 후대의 《海國圖志》나 《瀛環志略》에 등장하는 음역 지명 보다 글자 수가 많은 번역어가 다수 보인다.

‘地球’, ‘南極’, ‘北極’, ‘赤道’, ‘經線’, ‘緯線’ 등의 지리학 용어도 이 때 마테오리치가 만든 지도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존하는 중국 지도 중 아메리카 대륙이 최초로 등장한 지도이기도 하다.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坤輿萬國全圖》보다 이백 여년 후에 출판된 《海國圖志》는 임칙서(林則徐, 1785~1850)가 청말(清末)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서양관련 자료와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쓴 지리 자료들을 모아둔 것을 위원(魏源, 1794~1856)이 정리하여 발간한 세계지리서이다.⁶⁾ 출판 이후 일본과 한국으로 전해져 외국지명 한자표기에 큰 영향을

5) 이탈리아어 ‘Germania’를 ‘入爾馬尼亞’로, 영어 ‘Germany’를 ‘日爾曼’으로 각각 음역한 것은 광둥어나 민난 등의 남방 방언음에 기반한 번역으로 보인다.

주었다. 이 시기 한, 중, 일 삼국의 외국 지명 표기는 거의 중국 번역을 받아 들여 동일한 표기 양상을 보인다.

《海國圖志》에는 지명 외에도 당시 서양에서 도입된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근대 번역 어휘들도 보이는데 ‘公司’, ‘新聞’, ‘新聞紙’, ‘國會’ 등의 단어들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일본어에서 온 차용어라고 주장하는 ‘貿易’, ‘交易’, ‘進口’, ‘出口’ 등의 단어도 일본산 차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海國圖志》에 등장하고 있으며 ‘火車’, ‘火輪車’, ‘火輪船’, ‘鐵路’, ‘鐵軌’ 등의 중국어 단어도 《海國圖志》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⁷⁾ 국가명과 지명을 나타내는 데 쓰인 음역어는 대부분 17세기 가톨릭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쓴 지리서와 여행 보고서 등에 쓰였던 번역법을 따르고 있다.⁸⁾

《瀛環志略》은 서계여(徐繼畬, 1795~1873)가 아편전쟁이 끝난 1843년부터 5년여에 걸쳐 각국의 지도와 서적을 참고하여 1848년에 완성하여 1849년에 간행되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베트남,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등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명은 《坤輿萬國全圖》에서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을 거쳐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6) 장수성江蘇省 양저우(揚州)에서 1844년에 50卷 44冊으로 처음 간행된 이후 1847년에 60卷 24冊으로, 1852년에는 100卷 24冊으로 증보되었다. 중국 역사서에서 발췌한 자료와 17세기 초의 《職方外紀》부터 19세기 초의 《萬國地理全圖集》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이 중국어로 쓴 10여 종의 지리서에서 내용을 인용하고 지명 용례를 기록하고 있다.

7) Masini, Federico.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1993. 이정재 역,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소명출판, 2005, 63쪽.

8) 같은 책 60쪽.

〈표 1〉

	《坤輿萬國全圖》 1602	《海國圖志》 1844~1852	《瀛環志略》 1849	현재
Asia	亞細亞	亞細亞	亞細亞	亞洲
Vietnam	安南	安南, 越南	越南, 安南	越南
Bangladesh	榜葛刺	孟加拉	孟加拉	孟加拉
Laos	老撾	老撾, 老掌	老撾	老撾
Myanmar	緬甸	緬甸	緬甸	緬甸

《海國圖志》와 《瀛寰誌略》은 그 전까지의 중국에서 고유 명사에 사용된 신생 한자어를 거의 다 모은 후에 쓴 책이라 당시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외국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를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원음을 음역할 때 여러 개의 동음이자(同音異字)가 사용된 결과 한 지명에 조금씩 글자가 다른 여러 개의 한자표기가 만들어진 것이 이 시기 음역 지명의 특징이다.

〈표 2〉

	《坤輿萬國全圖》	《海國圖志》	《瀛環志略》	현재
아프리카	利未亞	阿非利加	阿非利加	非洲
유럽	歐邏巴	歐羅巴, 歐巴	歐羅巴	歐洲
아메리카 대륙	亞墨利加	墨利加洲 ⁹⁾ , 亞墨利加, 亞美里駕	亞墨利加, 亞墨里駕	美洲
오세아니아	墨瓦蠟巨加 ¹⁰⁾	奧大利亞洲	奧大利亞	澳大利亞 澳洲

9) “其實彌利堅即墨利加。又作美理哥。及洲名。非國名也。西洋稱部落曰土迭。而彌利堅無國王……” 《魏源全集·海國圖志》，岳麓書社，2004，1623쪽.

10) 마젤란이 밟았던 대륙이라는 뜻이다. 鄒振環, 《晚清西方地理學在中國》, 1987, 44쪽.

	《坤輿萬國全圖》	《海國圖志》	《瀛環志略》	현재
그리스	厄勒齊亞	希臘國, 厄肋西亞, 額力西	厄肋西亞希臘, 額力士, 額力西, 厄肋祭,	希臘
네덜란드	啁蘭地	荷蘭	荷蘭, 和蘭, 賀蘭	荷蘭
덴마크	大泥亞, 第那瑪爾加 ¹⁾	躡國, 大泥, 丁抹, 丁末, 領墨, 丹麻爾	躡國	丹麥
러시아	魯西亞	俄羅斯, 厄羅斯, 俄國, 鄂羅斯, 幹羅斯, 羅利, 羅斯, 羅沙	峩羅斯, 俄羅斯, 鄂羅斯, 厄羅斯, 阿羅斯, 幹魯斯, 鄂魯斯	俄羅斯
스위스		瑞西, 瑞士國, 綏沙蘭	瑞士	瑞士
스코틀랜드	思可齊亞	蘇各蘭	蘇各蘭	蘇格蘭
스페인	以西把尼亞	大呂宋, 斯扁, 西班牙, 是班牙, 以西把尼亞	西班牙, 是班牙, 實班牙, 斯扁亞, 士便, 西班牙, 義斯把爾亞, 以西把尼亞, 大呂宋	西班牙
영국	諳厄利亞	英吉利國	英吉利, 英機黎, 英圭黎, 膺吃黎, 諳厄利, 英倫的	英國
이탈리아	意大里亞	意大里國, 以他里, 伊達里, 羅馬國	意大里亞, 以他里, 以他利, 伊達利, 羅問, 羅汶	意大利
캐나다	加拿大	加拿他	加拿他	加拿大
터키		土魯幾國, 都魯幾, 土爾幾	土耳其	土耳其
포르투갈	波爾杜瓦爾, 拂郎機	布路亞國, 葡萄亞	葡萄牙	葡萄牙
헝가리	翁阿利亞	寒牙里, 寒底里阿, 翁加里, 匈牙利	匈牙利	匈牙利

Ⅲ. 원지음과 다른 지명 번역어

1. 개항 항구의 방언과 지명 번역

서계여(徐繼畬)는 《瀛環志略》의 서문에서 “외국지명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지명을 다르게 번역하는 문제, 중국어에 동음자가 많은 문제, 또 외국어와 중국어가 발음 면에서 조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모두 광둥(廣東)에 거주하는데 그들이 배우는 광둥 사투리는 북방관화음인 정음(正音)이 아니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¹²⁾을 보면 중국의 각 지역별 방언 발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것 같다. 서계여의 노력과 그의 표준음에 대한 지식 덕택에 그가 고유명사와 지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음역 표기들은 이후의 공식 문서들에 널리 쓰이게 된다.¹³⁾ 중국 정부도 표준음으로 고유명사를 통일시키려 했으며 표준음으로 표기 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고유명사는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카오는 1557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정식 허가를 받아 체류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선교사들도 이곳에 도착하였다. 18세기 초에는 광둥성의 광저우에 동인도 회사가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푸젠(福建)성의 샤먼(廈門) 남부, 푸저우(福州), 취안저우(泉州), 그리고 저장(浙江)성의 Ningbo(寧波) 등지에서 항구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1757년에 청나라는 모

11) 이탈리아어로 덴마크는 ‘Danimarca’이다.

12) “外國地名最難辨識，十人譯之而十異，一人譯之而前後或異。蓋外國同音者無二字，而中國則同音者或數十字，外國有兩字合音三字合音，而中國無此種字。故以漢字書番語，其不能吻合者本居十之七八，而泰西人學漢文者皆居粵東，粵東土語本非漢文正音，展轉淆訛，遂至不可辨識。一波斯也，而或譯爲白西，轉而爲包社巴社，訛而爲高奢，余嘗令泰西人口述之則曰白而社，又令其筆書之則曰比耳西。今將譯音異名注於各國之下，庶閱者易於辨認，然亦不能遍及也。”

13) Masini, Federico. 앞의 책, 67쪽.

든 서양인 거주자들과 무역업자들의 활동 범위를 광저우로 제한하였고 이 금령은 1840년이 되어서야 해제되었다. 난징조약이 체결된 이후 서양인들은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그리고 상하이 등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항구 도시들에서 사용되던 광둥어, 민난어, 상하이어로 처음 번역된 지명이 아직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언음 기반의 음역 지명은 현대 북경 표준어로 읽으면 발음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Portugal)의 음역어인 ‘葡萄牙’는 민난(閩南)음으로 번역된 것이다.

마테오리치는 《坤輿萬國全圖》에서 ‘포르투갈(Portugal)’을 당시 북경음에 근거해 ‘波爾杜瓦爾(bō’ěrdùgě’ěr)’로 음역하였다. 반면 서계여는 《瀛環志略》에서 ‘포르투갈’을 ‘葡萄牙(Pútáoyá)’로 음역하였다. 서계여는 당시 샤먼(廈門)에 거주하던 서양 선교사나 통역관들의 발음을 참고하였는데 그 선교사와 통역관들이 북방관화는 모르고 민난방언만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한다. 샤먼어를 비롯한 일부 민난어에서 ‘牙(yá)’는 ‘ga2’나 ‘ge2’로 읽혀지기 때문에 ‘葡萄牙’를 샤먼어로 발음하면 ‘pu2to2ga2’가 된다.¹⁴⁾ ‘Pútáoyá’보다 훨씬 원음에 가깝다. 최대한 표준음에 기반한 번역을 하려고 했던 서계여의 노력에 한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서계여는 《瀛環志略》에 ‘波爾杜瓦爾’와 ‘葡萄牙’ 두개의 음역 명을 같이 수록하고 있으나 ‘波爾杜瓦爾’이 음절이 길고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도태되고 세음절로 기억하기 쉬운 ‘葡萄牙’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언음에 근거한 음역 지명으로 인한 우스운 일화도 있다. 당시 이홍장(李鴻章)의 아들이 포르투갈 공사로 파견 나가게 되었을 때 포르투갈의 음역 지명을 ‘葡萄牙’로 들은 이홍장은 포도에 어떻게 이(牙)가 있냐고 놀라 물었다고 한다.¹⁵⁾

14) 민(閩)방언은 중국의 여러 방언 가운데서 가장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나뉘지기로 유명하다. 필자의 지인인 60대 대만 거주 민난어 화자는 ‘葡萄牙’를 ‘pu2to2ga2’가 아닌 ‘budeya’로 발음하면서 민난음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일부 민난방언에서는 ‘美人(měirén)’을 ‘bíjīn’ 혹은 ‘bílín’으로 읽는다. 즉 성모 ‘m’을 ‘b’로 발음 하는데, 《海國圖志》에서 ‘봄베이(Bombay)’를 ‘孟買(Mèngmǎi)’¹⁶⁾, ‘방글라데시(Bangladesh)’를 ‘孟加拉(Mèngjiālā)’, ‘방콕(Bangkok)’을 ‘曼谷(Màngǔ)’로 번역한 것은 ‘m’을 ‘b’로 발음하는 민난음 기반의 번역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¹⁷⁾

‘希臘(Xīlǎ)’는 영어가 아닌 그리스어를 광둥방언음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리스가 아니라 엘라다(Ελλάδα/Ellada)라고 부른다. 고대 그리스어로 ‘헬라스(Ελλάς)’라 발음했으며 근대 그리스에서 ‘엘라스(Ελλάς)’라 하였다. ‘헬라스/엘라스/엘라다’ 등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그리스인의 시조 헬렌이다.¹⁸⁾ 《海國圖志》의 ‘額力西(èlìxī)’는 ‘엘라스(Ελλάς)’를 음역한 것으로 보이며, ‘希臘’는 고대그리스어 ‘Hellas’를 광둥음으로 번역한 것이다. 새우만두인 ‘蝦餃(xiǎjiǎo)’를 광둥에서는 ‘hagau’라고 발음하는데 광둥어 성모 ‘h’는 표준어 ‘x’ 해당한다.¹⁹⁾ ‘加拿大’도 광둥음 ‘Ganadai’가 표준음 ‘jiānádà’보다 훨씬 원지음에 가깝다.

‘터어키(Turkey)’는 ‘土耳其(Tǔ'ěrqi)’인데 ‘其’는 광둥어에서 ‘ki’로 발음 되므로 광둥음이 원지음과 더 가깝다.²⁰⁾

15) 周振鶴、遊汝杰, 《方言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87, 238쪽.

16) 영어에서는 ‘Bombay’라고 하지만 인도 원지음은 ‘Mumbai’이다.

17) 필자의 방언음에 대한 지식은 인터넷 사전이나 현지 화자의 발음에 근거한 단편적인 것이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18) 헬레니즘 문화가 ‘동방에 전파된 그리스 문화’인데 ‘그리키즘’이 아니라 헬레니즘인 것은 이런 이유이다. 유럽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그리스를 라틴어명 그라이키아(Graecia)와 유사한 발음으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을 칭할 때에는 ‘Graecia’ 대신 ‘헬라스(엘라스)’에서 따온 이름을 불러준다. 예를 들어 영어로 그리스의 정식 국호는 ‘Greek Republic’이 아닌 ‘Hellenic Republic’이다. 위키백과 참고.

19) 표준중국어의 [j-], [q-], [x-] 성모는 광둥어의 [g-], [k-], [h-] 성모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

20) ‘터어키(Turkey)’는 포르투갈어로 ‘Turquia’이다. 鄭英淑(2000:54-55)은 ‘土耳其’는 영어 ‘turkey’보다는 포르투갈어 ‘Turquia’를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

스위스와 스웨덴의 음역어인 ‘瑞典(Ruidiǎn)’, ‘瑞士(Ruishi)’의 광둥음은 각각 ‘Seoi6din2’과 ‘Seoi6si6’로 이 둘 역시 광둥음이 훨씬 원지음과 부합한다.

《海國圖志》에는 미국의 ‘워싱턴(Washington)’을 ‘華盛頓’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상해발음에서 ‘沃(wò)’는 ‘華(huá)’로 발음된다.²¹⁾

2. 영어 지명 외 기타 외국어 지명 음 음역

대부분의 외국 지명은 영어 기반 음역인데 앞의 그리스와 같은 일부 지명은 영어가 아니고 그 나라 원지음이나 기타 다른 음을 기반으로 번역되었다.

〈표 3〉

	《坤輿萬國全圖》	《海國圖志》	《瀛環志略》	현재
Germany	入爾馬泥亞 Germania	耶馬尼, 者爾麻尼, 亞勒馬尼, 亞墨尼, 日耳曼, 阿理曼, 亞里曼, 亞利曼	日耳曼, 阿理曼, 阿勒曼, 亞里曼, 占曼尼耶馬尼, 熱爾麻尼, 亞勒墨尼亞	德意志, 德國

‘독일’은 영어로는 ‘Germany’이고 독일어로는 ‘Deutschland(독일인의 나라)’, 프랑스어로는 ‘Allemagne(아라만족의 나라)’이다. 게르만족들은 자신들을 ‘Deutsche’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나라를 ‘Deutschland’라고 불렀다고 한다.²²⁾

였다.

21) 반대의 경우로 《海國圖志》에서 ‘바르샤바(Warsaw)’는 ‘洼肖(waxiao)’로 원지음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으나 후에 지금의 ‘華沙’로 바뀌었는데 상해 방언음으로 음역된 것으로 보인다.

22) 邵燾圖、周定國等編, 《外國地名語源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3, 455쪽.

‘독일’은 위의 표처럼 상당히 다양한 번역어가 있었다. 《坤輿萬國全圖》에서는 이탈리아어 ‘Germania’를 ‘入爾馬泥亞’로,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에는 영어 ‘Germany’를 ‘日爾曼, 日耳曼, 耶馬尼, 熱爾麻尼, 熱爾瑪尼亞’ 등으로, 프랑스어 ‘Allemagne’은 ‘阿理曼, 亞里曼, 亞利曼’ 등으로 음역한 결과이다. 오늘날의 ‘德國’는 독일어 ‘Deutschland’에서 왔는데, 정영숙(2011:205)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876년 이후에서야 ‘Deutschland’를 ‘德意志’로 번역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德國’는 ‘德意志(國)’를 두 글자로 축약한 것이다.²³⁾

‘西班牙’는 영어 스페인(Spain)에 대한 번역이 아니고 스페인어 ‘에스파냐(España)’를 음역한 것이다. 스페인(Spain)은 라틴어로는 ‘hispania’, 스페인어로 ‘España’인데 《坤輿萬國全圖》에서는 ‘以西把尼亞’라고 음역하였으며 ‘艾斯班尼亞’, ‘愛斯班尼亞’, ‘日斯巴尼亞’ 등의 유사한 음역어가 있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에서는 제일 앞의 ‘E’가 탈락되고 ‘paña’ 부분만을 음역하여 ‘西班牙’라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네덜란드(Netherland)를 《坤輿萬國全圖》에서는 ‘囑關地(wailandi)’라고 번역하였고, 《海國圖志》에는 ‘荷蘭’, 《瀛環志略》에는 ‘荷蘭, 和蘭’, ‘賀蘭’ 등의 음역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모두 네덜란드 서부 북해 연안의 홀란드(Holland)지방에 대한 음역이다. 네덜란드의 음역인 ‘尼德蘭’이 널리 쓰이지 못하고 네덜란드의 한 지방 명이 국가 명으로 대체되어 쓰인 특이한 경우인데, 이는 17~18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동인도 회사의 거점지가 북해 연안의 홀란드지방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홀란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 자신들은 ‘홀란드’에서 왔다고 소개했

23) 이한섭, 박성희(2017: 214)에 따르면 〈한성순보〉 등의 우리나라 자료에 ‘德國’과 ‘德意志國’ 모두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등장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海國圖志》나 《瀛環志略》이 후의 어떤 지리서에서 ‘德意志國’ 혹은 ‘德國’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지는 조사하지 못했으나 우리나라가 당시 중국 지명 번역을 몇 년 시차로 그대로 받아 들여 사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그즈음 이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으므로 네덜란드가 홀란드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러시아(Russia)’를 1602년의 《坤輿萬國全圖》에서는 ‘魯西亞’라고 번역하였는데 원지음에 충실한 음역이었다. 그러나 《海國圖志》와 《瀛環志略》 모두 원지음과 다른 ‘俄羅斯’라는 번역어를 수록하고 있다. 14세기 명나라 초기에 편찬된 중국 《元史》에서 벌써 러시아를 ‘兀魯思(wūlǔsī)’, ‘斡魯思(wòlǔsī)’라고 번역하고 있고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가 체결한 국경 확정조약인 ‘네르친스크(Nerchinsk)조약²⁴⁾에도 ‘鄂羅斯(èluósī)’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은 일찍부터 ‘俄羅斯’와 유사한 발음으로 러시아를 지칭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러시아어 통역을 주로 몽고인들이 하였다고 하며, ‘俄羅斯’는 몽고어에서 러시아를 지칭하는 ‘(어)오로스(eros)’를 중국어로 음역한 것이다.²⁵⁾ 몽고어에서는 ‘r’이 초성으로 쓰일 때는 습관적으로 모음 ‘ə’를 ‘r’ 앞에 붙여서 발음하기 때문에 ‘俄羅斯’라는 음역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지명은 원지음과 한자 표기 사이에 발음의 유사성이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중국어에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舊金山’,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檀香山’, 블라디보스톡을 ‘海參威’라고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음역도 의역도 아닌 그 지역에서 나는 물산의 명칭이나 장소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교들이 부르던 것이 지명으로 굳어진 예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聖弗朗西斯科’라는 음역어가 한 때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舊金山’, ‘三藩市’ 등으로 불리우는데, ‘三藩市’는 ‘샌프란시스코’의 ‘San Fran’를 광둥어 사용 화교들이 음역한 것이고, ‘舊金山’은 미국의 화교들이 부르던 지명을 그대로 쓴 것이다. 1840년대 말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금 채굴업자들은 중국 노동자들을 불러 들여

24) 중국어로 ‘尼布楚條約’이라고 하며 양측 통역은 중국에 주재하던 제수이트(예수회·가톨릭의 남자 수도회) 선교사 두 사람이 하였기 때문에 조약문은 중립적 언어인 라틴어 조약문이 정본이 되었고, 이를 기초로 만주어, 러시아어 번역문이 만들어져서 교환되었다.

25) 邵燾圖、周定國等編, 《外國地名語源詞典》, 301쪽.

값싼 노동력으로 금을 캐냈다. 이때 미국에 건너간 중국 노동자들은 ‘샌프란시스코’를 금을 캐는 곳이라는 뜻의 ‘金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에서 새로 골드러시가 일어나자 중국인들이 ‘멜버른’을 ‘新金山’이라 부르고 ‘샌프란시스코’를 ‘舊金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멜버른’은 그 후 음역 지명 ‘墨爾本’이 ‘新金山’을 대체하여 쓰이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舊金山’이 공식적인 지명으로 쓰이고 있으며 홍콩, 대만등지에서는 음역어 ‘三藩市’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다.

‘호놀룰루(Honolulu)’는 ‘火奴魯魯’라는 음역어가 있었으나 ‘단향목(檀香木)’이 많이 생산되므로 하와이 화교들이 ‘檀香山’이라 불렀던 것이 공식 지명으로 굳어진 예이다.

‘金邊’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Pnompenh)’에 대한 번역이다. 이 역시 그 곳의 화교들이 부르던 것이 공식 지명 화 된 것이다. 프놈펜 부근에 작은 산이 있었는데 산 위에 금탑이 있어서 그 산을 ‘금탑산(金塔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금탑산’ 옆에 있는 도시라는 의미로 프놈펜을 ‘金邊’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화교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고 중국내에서도 이 지명이 알려져 있었던 관계로 ‘攀龍瀨’, ‘布農奔’, ‘百囊奔’ 등과 같은 음역지명을 제치고 정식 지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IV. 한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

《坤輿萬國全圖》와 《海國圖誌》, 《瀛環志略》 등은 일찍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해져 매우 널리 읽혔고 외국지명 번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坤輿萬國全圖》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603년 북경에 갔던 이광정(李光庭, 1552~1627)과 권희(權禧, 1547~1624)에 의해서였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이런 세계 지리서를 통해서 외국의 지리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음역 지명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외국 지명 한자 표기는 이런 지리서에 쓰인 중국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876년 개항을 전 후로 일본을 통하여 서양 문물이 소개됨에 따라 중국 한자에서 조금 변형된 일본식 한자 지명이 들어와 중국식 번역어와 함께 사용 되었고 일부 한국식 표기가 고안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당시 <한성순보>, <독립신문> 등 한국 신문이나 소설 등에서 한자로 번역된 외국 지명은 중국식, 일본식, 한국 자체 고안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 1900년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일본식 한자 지명을 받아들인 것이 많아지게 된다.

‘歐羅巴’, ‘佛蘭西’, ‘西班牙’, ‘希臘’, ‘美國’, ‘英國’은 개항 이전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獨逸’, ‘和蘭’, ‘露西亞’, ‘濠洲’, ‘伊太利’는 일본식 한자 지명 표기이다. 일본의 외국 지명 표기는 중국을 통해 서구문물을 받아들인 16세기말 이전에는 거의 중국의 한자표기를 따랐다. 16세기말 이 후에도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표기를 받아 들였으나 서양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서 부터는 가나 표기를 병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²⁶⁾, 일본의 발음 체계에 맞는 한자 표기를 자체적으로 만든다.

‘네덜란드’에 대한 번역 표기로 한국과 일본은 ‘和蘭’ 이라고 하고 중국은 현재 ‘荷蘭’이라고 한다. <瀛環志略>에는 ‘荷蘭’ 외에 ‘和蘭, 賀蘭, 法蘭得斯’ 등 4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은 ‘荷蘭’을 계속하여 쓰고 있고 일본과 한국은 ‘荷蘭’과 ‘和蘭’을 병용하던 시기를 지나²⁷⁾ ‘和蘭’에 정착하였다.

1849년 출판된 중국의 <瀛環志略>과 1878년 출판된 일본의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²⁸⁾에 나타난 ‘독일’,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에 대한 한자 표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6) 鄭英淑, <開化期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의 漢字表記研究>,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0, 14쪽.

27) 이한섭·박성희 編, <개화기의 외국지명 표기사전>,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6쪽, 333쪽.

28) 일본 정부 파견 구미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 12개국을 시찰하고 1871년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표 4〉

	중국 《瀛環志略》 1842	일본 《米歐回覽實記》 1878
Germany	日耳曼, 阿理曼, 阿勒曼, 亞里曼, 占曼尼, 耶馬尼, 熱爾麻尼, 亞勒墨尼亞	獨, 獨逸, 日耳曼, 熱爾麻尼亞
Russia	峩羅斯, 俄羅斯, 鄂羅斯, 厄羅斯, 阿羅斯, 幹魯斯, 鄂魯斯,	露, 露國, 露西亞
Australia	澳大利亞	豪斯多刺利, 豪斯多辣利, 豪斯多拉利, 豪斯多刺利亞, 濠洲
Italy	意大里亞, 以他里, 以他利, 伊達利, 羅問, 羅汶	以, 以国, 以太利, 伊太利
France	佛郎西, 佛蘭西, 法蘭西, 佛郎機, 佛朗機, 拂朗祭, 荷蘭西	佛国, 佛朗西, 佛蘭西
U.S.A.	米利堅, 彌利堅, 米利堅合衆國	米利堅, 米合衆國, 米國

중국식 음역 표기는 일본어로 읽었을 때 원음과 차이가 날 경우 일본은 일본 발음에 맞는 한자를 골라서 썼다.

이탈리아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는 ‘意大利’라 하고 일본의 음역 표기는 ‘伊太利’이다. 《瀛環志略》에 수록된 ‘伊達利’에서 ‘達da’ 보다는 ‘太ta た’가 더 원지음이나 영어음에 가까우므로 일본에 전래된 후 일본에서는 ‘伊太利’로 바뀌게 된다. 《개화기의 외국지명 표기사전》(2017:34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식, 일본식 지명을 같이 쓰던 시기를 거쳐 1890년대 이후 일본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일본식 음역 ‘伊太利’로 정착되어 쓰인다. 일상에서 ‘伊太利’라는 한자를 쓰는 일은 드물지만 ‘韓伊정상회담’, ‘伊관 광객’, ‘伊프로축구 유벤투스’ 등과 같이 뉴스나 공문에서 이탈리아의 약칭으로 여전히 존재감이 있으며 많이 쓰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중국은 ‘俄羅斯’ 계열의 비슷한 명칭들을, 일본은 ‘露西亞’, ‘露國’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였다. II장의 〈표 2〉를 보면 《坤輿萬國全圖》에서는 ‘러시아’를 ‘魯西亞’라고 음역하였다. ‘露西亞’는 이 ‘魯西亞’의

‘魯’를 동음자인 ‘露’로 바꾸어 쓴 것으로 보인다. 정영숙(2000:81)에 따르면 일본 자료에서는 1869年 《世界國盡》에 ‘露西亞’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이후로 1880년대 들어 다수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 ‘露國’이라는 약칭도 1880년대부터 중점적으로 나타나 한국자료에서는 1880년대 소수 보이다가 1900년대 이후 그 용례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아관파천(俄館播遷)’, ‘노일전쟁(露日戰爭)’처럼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서 통용되는 음역 지명을 섞어서 쓰다가, 일본의 영향으로 ‘露西亞’가 공식적 한자지명으로 굳어졌으므로 ‘러시아어문학과’를 ‘노어노문학과(露語露文學科)’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에는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 쓰이던 ‘奧(澳)大利亞’라는 음역 표기 대신 ‘豪’로 시작하는 한자를 쓰고 있다. ‘豪斯多刺利, 豪斯多刺利亞’ 등은 ‘오스토랄리아’라는 일본어 발음을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중국 표기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발음과 최대한 유사한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박성희(2011:79)는 ‘오스토랄리아’의 ‘오’ 발음을 ‘豪(ごう)’로 쓴 것은 ‘오스트리아(奧地利)’의 첫 음절 ‘오(奧)’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를 ‘澳洲’, ‘오스트리아’는 ‘奧地利’로 동음이자인 ‘澳(ào)’와 ‘奧(ào)’를 각각 써서 두 나라를 구분하고 있다.

이지영(2008:13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95년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小學萬國地誌》에 처음으로 ‘濠太利亞/濠洲’라는 일본식 한자 표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小學萬國地誌》는 이완용이 서문을 쓰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지명 번역에서의 본격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책이다.

1876년 이후 중국은 독일어 ‘Deutschland’를 ‘德意志國’라고 번역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본은 ‘Deutschland’가 아닌 ‘Deutsche’만을 ‘獨逸ドイツ 도이쯔’로 음역하였다.²⁹⁾ 《개화기외국지명표기사전》에는 1890년대 중 후반의 〈한성순보〉 등 우리나라 개화기 자료에 ‘德逸’, ‘德乙’도 수록되어 있

는데, 이는 일본이 ‘獨逸’이라는 번역어를 만들기 전 과도기에 쓰인 지명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德逸’, ‘德乙’, ‘獨逸’이 중국어에서 들어온 ‘日耳曼, 德國’ 등과 같이 쓰이다가³⁰⁾ 결국 ‘獨逸’이 ‘德國’을 대체하여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프랑스에 대해 중국은 지리서의 여러 지명 중 ‘法蘭西’를 ‘法國’으로 축약 해서 쓰고, 일본과 한국은 ‘佛蘭西’를 선택하였다.

《海國圖志》 등에서 아메리카 대륙은 ‘亞墨利加’,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아메리카’는 ‘彌利堅, 美理哥, 米利堅’ 등으로 번역하였다. 아메리카 대륙과의 구별을 위해 어두의 ‘a’를 생략한 ‘merica(n)’에서 둘째 음절 ‘me’를 ‘美/米/彌’로 음역한 ‘美利哥, 米利堅, 彌利堅’ 등이 만들어졌다. 중국에서는 ‘me’의 음역으로 ‘米’와 ‘美’가 함께 사용되다가 1880년대부터는 ‘美’로 바뀌었다고 한다.³¹⁾ 실제 중국어 발음에서 ‘米(mǐ)’ 보다는 ‘美(měi)’가 더 원음에 가깝다. ‘美國’은 ‘美利堅(合衆)國(아메리카합중국)’을 줄인 말이다. 일본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米國’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지리서의 ‘米利堅’이나 ‘米合衆國’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³²⁾

29) 김경호(1997:78)는 ‘獨逸(ドイツ)’은 네덜란드어 ‘Doits’를 음역한 것이고 《三兵谷古知幾》(1850)에 최초 용례가 나온다고 하였다. 일본 에도시기(1603~1867)에 네덜란드 ‘난학(蘭學)’이 발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덜란드어 음역도 설득력이 있다. 일본어학계에서는 ‘獨逸’과 ‘濠洲’는 일본이 중국 지리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이 일본 원음에 가까운 한자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0) 정영숙(2000:111)은 중국지리서의 영향으로 독일을 ‘德國’으로 번역했던 우리나라는 1870년 《高宗實錄》에 ‘獨逸’이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1883년의 《漢城旬報》, 1895년의 《西遊見聞》 등의 자료에서 점차 사용되기 시작하여 1900년 이후 출판된 자료에서는 다수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31) 王敏東, 《外國地名의 漢字表記에 對하여의 通時的 研究》, 大阪大博士位論文, 1995년, 鄭英淑(2000:50)에서 재인용.

32)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후 ‘美國’을 ‘米國’이라 폄하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그럴듯하게 들렸었다. 북한도 ‘米國’이라 표기한다.

우리나라는 1895년의 《小學萬國地誌》에는 ‘米合衆國’이라고 하였으나, 《개화기의외국지명표기사전》에 수록된 용례를 보면 1930년대까지도 ‘美國’과 ‘米國’을 같이 쓰고 있었다.³³⁾

- ① 廣東上海縣官長, 差俺爲美國傳語官. 《조선왕조실록》, 1866.
- ② 二十九日許米國讓於時京, 仁鐵道敷設權. 《조선왕조실록》, 1896.
- ③ 美國의 富를 紹介하야 本國同胞의 覺醒을 促함. <개벽>, 제11호 1921.
- ④ 俄國의 南進主義와 米國의 比律賓과 佛國의 越南과 日本의 韓滿經營 등으로..... <대동학회월보> 제3호 1908.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이라는 역사적인 원인으로 ‘獨逸’, ‘佛蘭西’, ‘伊太利’, ‘濠洲’, ‘和蘭’ 등의 국가명은 일본식 표기를 따르고 있는데 반하여 ‘美國’은 일본식 표기 ‘米國’으로 바뀌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張玉(2011:4)은 ‘美, 英, 法, 意’나 ‘美利堅, 英吉利, 德意志, 比利時’ 등과 같이 중국은 서양 국가명 번역을 할 때 이름답고, 길(吉)한 의미를 나타내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단어를 썼다고 하였다. 일본의 ‘米, 佛, 伊, 獨’ 보다는 확실히 중국이 ‘美, 法, 意, 德’과 같은 좋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

‘나성에 가면~’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나성(羅城)’은 우리나라의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중국어에서는 ‘洛杉磯(Luòshānjī)’라고 하고 줄여서 ‘洛城’이라고도 한다.³⁴⁾ 일본 자료에도 ‘로스엔젤레스’에 대한 번역어로 ‘羅城’이 등장하지만 《現代漢語詞典》을 비롯한 중국 사전에는 ‘羅城’이 ‘LA’의 번역 지명으로 쓰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고려대 《中韓辭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33) 이한섭, 박성희編, 《개화기의 외국지명 표기사전》,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35-237쪽.

34) ‘LA 컨피덴셜’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의 중국어 번역은 ‘洛城機密’이다.

- ① 외성(外城).
- ②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 있는 성벽.
- ③ 뤼칭.[광시(廣西)에 있는 현(縣) 이름]

중국이나 한국의 중국어 사전에서 ‘羅城’이 미국의 ‘LA’로 쓰인 용례는 없으므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羅城’은 중국 ‘洛城’에서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坤輿萬國全圖》와 《海國圖志》, 《瀛環志略》 등의 세계 지리서들에 등장하는 중국어 지명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원지음과 다른 지명 번역어와 그 번역어가 한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도 알아보았다.

‘美國’은 ‘美利堅(合衆)國’, ‘英國’은 ‘英吉利國’, ‘法國’은 ‘法蘭西’, ‘德國’은 ‘德意志國’의 줄임말이었다. 중국학자들의 주장대로 중국은 서구 국가 명이나 도시 명에 대한 한역에 있어 ‘美, 英, 法, 德, 意’ 등 대부분 좋은 의미의 한자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 전후 우리나라의 서양 지명에 대한 한역(漢譯)은 대부분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과 비슷하거나 같다. 그러나 ‘伊太利’, ‘佛蘭西’, ‘露西亞’, ‘獨逸’, ‘濠洲’ 등 중국과 다른 한역 지명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이 ‘米國’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자체 한역이 아니라 《海國圖志》를 비롯한 중국 지리서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개항 항구가 있던 지방 도시에서 광둥어, 민난어, 상하이어로 처음 번역된 지명이 아직도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외국 지명은 영어 지명을 음역한 것이나, ‘獨逸’, ‘和蘭’, ‘西班牙’, ‘希臘’ 등은 영어가 아닌 그 나라 원지음이나 기타 다른 음을 기반으로 음역되었다.

일본어학계에서는 ‘獨逸’과 ‘濠洲’는 일본이 중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번역한 지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우리나라 개화기 자료에는 ‘德逸’, ‘德乙’, ‘獨逸’ 등이 중국어에서 들어온 ‘德國’과 같이 쓰이다가 결국 ‘獨逸’이 ‘德國’을 대체하여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구 열강에 대한 한역 표기는 대부분 일본과 궤를 같이하는데 이는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도 하지만 발음 면에서 일본식 지명들이 중국식 지명보다 대체로 원지음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수용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美國’ 만은 일본식 표기 ‘米國’으로 바뀌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 참고문헌 >

- 金敬鎬, 〈外國地名的 漢字略語表記-濠洲와 佛蘭西를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 韓國日本語學會, 1999.2.
- 朴省姬,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의 서양지명 표기 연구-《海國圖志》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 제32집, 2011.12.
- 이지영, 〈개화기의 외국 지명 수용 과정〉, 《국어국문학》, 2008.
- 이한섭·박성희 編, 《개화기의 외국지명 표기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鄭英淑, 《開化期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的 漢字表記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海國圖志·續修四庫全書 史部,地理類》, 上海古籍出版社, 1995.
- 《瀛環志略·續修四庫全書 史部,地理類》,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黃時鑒, 龔纓晏 著, 《利瑪竇世界地圖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4.
- 沈國威, 《近代日中語彙交流史》, 이한섭 외 옮김, 《근대중일어휘교류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 魏源全集編輯委員會, 《魏源全集·海國圖志》, 岳麓書社, 2004.
- 張玉, 《現代漢語音譯地名用字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邵獻圖、周定國等編, 《外國地名語源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3.

周振鶴、遊汝杰, 《方言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87.

鄒振環, 《晚清西方地理學在中國》, 한지은 옮김, 《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 푸른역사, 2013.

Aleni, Giulio, 《職方外紀》, 천기철 옮김, 일조각, 2005.

Masini, Federico.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1993. 이정재 역,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소명출판, 2005.

金敬鎬, 《韓國語における日本語系借用語の研究: 音韻と表記を中心に》, 專修大學博士學位論文, 1997.

久米邦武 編修·田中彰 校訂,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 岩波文庫, 1977.

<Abstract>

“坤輿萬國全圖” is the first map of China with geographical names in chinese characters. “海國圖志” and “瀛環志略” are the representative world geography of 19th century China. This paper studied the chinese translat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se map and books.

‘美國’ is short for ‘美利堅合衆國’, ‘英國’ for ‘英吉利國’, ‘法國’ for ‘法蘭西’, and ‘德國’ for ‘德意志(國)’. Chinese character translation of western country geographical names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enlightenment period was mostly influenced by China, so it is similar to China, but the translation different from chinese translation such as ‘伊太利’, ‘佛蘭西’, ‘露西亞’, ‘獨逸’, ‘濠洲’, they were influenced by Japan. As the chinese scholars claim, most chinese translation used good chinese characters such as ‘美, 英, 法, 德, 意’ in translation of western country names or city names.

The fact that Japan called ‘米國’ was not Japanese translation, but was found that it was influenced by Chinese geography books including “海國圖志”.

In the provincial cities of China's port openings, the geographical names that first translated into Cantonese, Min Nan, and Shanghai are still in use. Most foreign names were transliterated based on English names, but ‘獨逸’, ‘和蘭’, ‘西班牙’ and ‘希臘’ were transliterated based on the original sound or other notes of the country, not English.

Due to historical reasons, most of Korea's Chinese character notation of western country names are the same as in Japan. It is interesting that ‘美國’ is an exception.

Key Words : 지명번역(Geographical name translation), 한자표기(Chinese character notation) 방언음(Dialect sound), 음역(transliteration), 원지음(Original sound)

